



유애경 보살은... 1959년 경남 함안 칠원 출생으로 마산어고를 졸업하고 1980년부터 마산 국군병원 군무원으로 일했다. 96년부터 정교회 JTS 평화재단 좋은벗들 등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며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창원 성주사, 남해 보리암, 지리산 법계사 등 사찰은 물론 마산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펼쳐왔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입진각에서 매주 월요일 민족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참회정진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o@hyunbul.com

동 등을 포함한 불교사회운동에 나선다. 하지만 이런 유 보살의 행동은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거리의 시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건 남편이었다. “남편은 나가지 말라고 철사줄로 제 손을 꽂고 묶어 놓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차근차근 풀고 밖으로 나갔죠(웃음). 자식들에게도 네 엄마랑 이혼할 거라는 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가 나쁜 일하는 거 아니지 않냐며 남편을 설득했대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했죠. 아들은 제가 높은 사람 되는 것보다 거리에서 모금할 때가 제일 빛나대요. 지금 남편은 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죠. 제가 복이 너무 많아요.”

이뿐만이 아니다. 6.25참전용사였던 시아버지와 시 작은아버지도 그녀의 후원자로 만들었다. 북한을 돕는 그녀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북한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 모금이 왜 필요한지 간절히 이야기하니 명절 때마다 5천원씩 그녀의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해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이해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을 돕는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하면 북한 어린이를 돕는 그녀를 욕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났을 때 당시의 어려움을 그녀는 이렇게 토로한다.

“그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하는 남편 친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죠. 그분은 적십자 회원인지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마음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 밥이나 해주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적십자 회원까지 이렇게 나오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산 오동도 문화의 거리에서 모금함을 놓고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21일간 철야정진을 하며 모금을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도 하고 왜 북한을 도와주냐고 따지기도 하고 반발이 심했지만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진을 이어나갔다. 그녀에게는 오직 북한의 굶는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 보다는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밤이다 보니 술집 아가씨들도 퇴근하면서 돈을 넣어주고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모금함에 돈을 넣어 주었죠. 간절히 기도하다보니 21일만에 200 만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21일 기도 마지막 날에 저를 말렸던 남편 친구인 한의사가 만원을 넣어주고 지나갔어요. 너무 고맙웠어요. 역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뿐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거리모금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웠다고 한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북한 어린이를 돕고자 모금을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자 마음을 내면 주변에서 다 도와줘요. 세상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어 가능한 일이지요”

지식으로 배운 불교의 연기법을 거리에서 몸으로 체득했다고 말하는 유애경 보살. “불교의 오계에서는 불살생을 첫째로 꼽는 이유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는 이념도 지식도 남북도 없어요. 간절히 그 뜻을 알리면 남이 사는 일이 곧 내가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일체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북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 또 그녀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어주는 유 보살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나투시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현재 북한을 위한 민간지원도 다 끊긴 상태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북 관계가 호전 되었을 때를 대비해 다시 전국을 다니며 거리 모금을 해나갈 생각이다. 우리가 양껏 차린 음식을 먹고 남길 때 또 남북이 서로를 다했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도 북한의 아이들은 또 주민들은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을 적으로 보며 혹은 귀찮은 존재로 보며 그들을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동반자로 여기며 함께 미래를 도모할 방법을 구할 것인가? 유애경 보살의 기도는 우리의 작은 실천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마산 오동도문화의 거리에서 21일간 철야정진을 했다.



2006년 8월 15일 북한 홍수 피해를 위한 JTS모금캠페인 후 마산·진주 JTS 회원들과 기념 촬영

전법일기

어린이·청소년 법회(2)

일요일이 되면 우리절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신도 20~30명,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와 보조교사 50~70명이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오전 10시, 승합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법당에 들어간다. 이미 자리잡은 어른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빈자리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저희들끼리 킁킁거리며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손을 예쁘게 모으고 진지하게 절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신도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본다. 처음엔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꾸짖던 노보살님들도 지금은 별로 불편해 하지 않는다.

어린이법회를 2년간 꾸준히 했더니 지금은 중·고등학생도 제법 된다. 첫째에 6학년이었던 아이들이 그해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고등학생들도 드문드문 눈에 띈다. 대학생들은 무조건 보조교사다.

오랜만에 오는 신도나 다른 절 불자들은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은 걸 보고 놀란다. 어떤 불자는 “다른 절은 경로당처럼 조용한데 우리절은 활기가 넘친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우리절에서 법회를 하는 이유는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인성교육이 목적이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유심히 지켜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아직은 절없이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도 아이들이 어른들이 너무 일찍 경쟁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정서가 피폐해져서 어린 나이임에도 범죄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생이 자살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불교적 인성 교육, 진짜 불사”



그림·박구원

다른 절 경로당처럼 조용한데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활기 넘치는 법당 ‘흐뭇’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옛 어른들의 지혜를 접한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갈 것으로 믿는다.

불교적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아이들이 절에 와야 하고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더라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

가. 우리절 법회에서는 지금까지 요리, 기타, 가야금, 네일 아트, 리본 공예, 풍선 공예, 민화 그리기, 배드민턴, 농구, 축구 등을 해왔다. 계절에 따라, 교사 사정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취미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아이들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 달간 결석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경주 남산이나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래프팅·4륜바이크·미술관 등 주요시설에 견학을 가거나 피자집이나 대형서점에 데리고 가 음식이나 책을 사주기도 한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를 최우선에 둔다.

향산 거사는 말한다. “우리절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 아이들이 크는 건 잠시거든요. 이 아이들을 꾸준히 절에 오게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절에 오게 될 것이고, 우리절이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진산 거사도 말한다. “절에서 아이들 법회를 하지 않으면 불교 곧 망합니다. 불자를 길러내는 불사가 진짜 불사입니다.”

하지만 이 불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적고 무관심한 불자는 많다.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어린이·청소년법회를 꾸준히 할 것이고 더 키울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3년 반이나 기다린 소중한 인연이므로.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이색 영구인등

팔각형새장전구

주름 등

영정큰전구

칼라모카시전구

영가 등

공단 등

극락 영정대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 제품은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대) (소)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왕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